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제 734 호 현대불교
2009년 6월 3일 수요일
불기 2553년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불교인연

어머니 염불 듣고 절 마당서 놀아

5월 23일 탈(脫) 권위주의와 지역 균등 발전 등의 가치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며 국민의 편에 섰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공인으로서 스스로를 '무종교인'이라 밝혔지만 노 前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 맺으며 살아왔다.

특히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그의 유언은 불교 존재론의 핵심인 생사일여(生死一如)사상을 담고있다.

노 前 대통령의 일생은 생을 마치는 순간 보여준 그의 생사관이 암시하듯, 불교와 뗄 수 없는 인연의 수레바퀴를 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집에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아침마다 종을 흔들면서 독송을 하셨는데, 잠결에 그 소리를 들곤 했다. 어렸을 때 뒷산 암자인 화일사(현 정토원)에서 놀았다"며 "불교에 대해 아주 친숙하다"고 했다.

고향 형남인 봉화 정토원 선진구 원장(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과 스님이 된 고향 친구, 평생 동반 권양숙 여사 등 그는 항상 불자들 속에서 살아왔다.

가난한 농가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명석한 두뇌로 법상치 않았지만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장학생으로 부산상고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김해 장유암에 머문 그에게 불교는 더 이상 낯선 존재일 수 없었다.

스무살 때 (선아심경 해의(解義))를 읽는 등 젊은 시절에는 불교 서적도 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학적 관심이 남달라 <불교학개론> <세계의 종교> 등 개론서들을 독파했다. 집에는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의 세계> 등의 경전을 소장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깊었다.

불교의 '관용과 자비'의 정신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정신적 기반이 될 것이라 믿었던 그는 1999년 새천년민주당 불자지원 모임인 '연등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자'란 사실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2001년 대선 기간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당시 원로회

의 의장 도원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 사찰을 방문하며 원로·대덕스님들과 인연을 맺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역대 후보 중 처음으로 북한산-천성산-금정산 관동 백지화 등의 '불교계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불교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또 불심 깊은 권양숙 여사가 불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2002년 12월 19일, 그는 1201만4277표(48.9%)라는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로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북한산관동도 백지화'를 절화해 불교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3년 12월 22일 해인사를 찾아 법전 스님을 예방하며 참회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해인사에 우리나라 최고(最古) 목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비로전을 건립하는데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지원했다. 퇴임 전인 2007년 11월 24일 열린 낙성법회 때에는 부인 권여사와 함께 직접 해인사를 찾기도 했다.

또 양양 낙산사가 화마로 손실됐던 2005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천년고찰 낙산사가 산불로 훼손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했다"며 "국가발전의 밑거름은 화합과 상생의 불교정신이다. 불교가 더욱 융성해서 국민들 가슴속에 더 많이 퍼지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노 前 대통령의 일에는 언제나 권양숙 여사가 있었다. 법전 스님으로부터 '대덕화(大德華)'라는 법명을 받은 권 여사는 파란만장한 노 前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지혜와 자비를 뒤는 불자의 원력으로 내조했다.

권양숙 여사는 2008년 2월 22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를 방문해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108배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 여사는 "정와대 내에 모셔져 있는 불상의 불전함을 5년 만에 개봉했다"며 280여 만원의 시주금을 명진 스님에게 전달했다. 권 여사는 대웅전에 모인 신도들에게 "지난 1989년부터 봉은사를 조용히 찾았었다"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에 봉은사를 와 보고



합장하고 있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노무현 前 대통령 유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강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선진구 원장, 선배이자 후원자로 결 지켜

정토원에 부모님과 위패 나란히

서거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기 직전, 부모님 위패가 모셔진 인근 사찰 정토원(원장 선진구)에 들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정토원은 노 前 대통령의 사저가 내려다 보이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 위치한 절로, 노 前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바위와는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사찰은 1920년대 초 작은 암자로 지어져 자암사, 화일사, 봉화사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 1983년 선진구(75·前 전국신도회장) 법사가 정토원으로 개명해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다.

노 前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귀향환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한 선진구 정토원 원장은 노 前 대통령의 초·중학교 선배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든든한 의지처가 돼줄 만큼 각별했다.

선 원장은 "정토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아이였을 때부터 불공을 드리러 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라와 놀던 놀이터 같은



봉화 정토원 선진구 원장.

곳'이라며 노 前 대통령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회상했다.

선 원장은 노 前 대통령과 같은 고향 사람이면서 진영 대창초등학교와 진영중학교 선배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걸어왔다.

싶었다"고 방문 이유를 밝히고 견희씨와 정연씨 등 두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인종기도비 5년치를 납부해 봉은사는 사실상 노 前 대통령 가족의 원일이 됐다.

노 前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불교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4월 5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총무원 관계자 20여 명이 인근 봉화산 정토원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봉화마을을 찾자 노 前 대통령은 "큰스님들께서 이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크게 반겼다. 또 스님들과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박연차 게이트' 압박 수사로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기도 했다.

5월 29일 노무현 前 대통령 유해는 생의 마지막 발길을 옮겼던 봉화산 정토원에 부모님의 위패와 함께 임시 안치됐다.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대변해 온 '서민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마치고 부처님 도량에서 마침내 잠든 열반을 얻은 것이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정토원의 한 스님(87)은 "(노 前 대통령) 초등학생 시절,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총학생회장까지 맡았던 선 원장을 보면서 '나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는 얘기를 하며 함께 웃곤 했다"고 말했다.

노 前 대통령에게 선 원장이 어린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세월이 흐른 후 선 원장은 노 前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가 됐다.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를 도왔고, 귀향 전에는 '귀향환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맡았다.

선 원장이 지난 2월 <부처님의 3대 선언>이란 법보시용 책을 준비하면서 초고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노 前 대통령이었다. 이 책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불교 수행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자연은 나, 나는 자연'이라는 불이법(不二法)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시 노 前 대통령은 이 책을 보고 "책의 내용이 너무 알차고 배울 게 많다"며 "앞으로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인용 해야겠다"며 책 한 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몇 달 후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말로 그분의 유서에 투영됐다"며 "여기에 노 前 대통령의 위패를 모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5월 29일 영결식 거행 후 화장된 노 前 대통령의 유해는 49재가 끝날 때까지 정토원에 안치되고, 비석은 부도탑 형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bbp@hanmail.net



2005년 8월 30일 권양숙 여사와 함께 합친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위). 2007년 해인사 대보리전 낙성법회에 참석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내외(아래).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호국법화경사경봉안기도대법회

천안 구룡사 천불천탑 세계불교수도원 오전 10시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천불천탑 조성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법화경 사경을 탑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를 병행합니다.
예로부터 법화경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경전으로 알려져 왔으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의지로 법화경을 사경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전세계에 몰아닥친 경제난의 여파로 우리나라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화합된 마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대표서예작가들과 함께하는 서화문화축전과 법화행자들의 노래경연대회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스러운 대법회에 동참하여 국가와 민족의 화합을 기원합니다.

천안 구룡사 세계불교수도원
6월 13일 오전10시

천안역 셔틀버스운행안내
1호선 전철 천안역 하차
⇒ 천안역 주차장 출발(오전 8시~ 오후 12시)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행사장 도착

- 일시 : 불기 2553년 6월 13일 오전10시
-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전화 041-552-9666~8)

버스표 구입안내 법화정사
제기역 1번출구 출발 02-928-1331, 1340

6월 13일 천안 구룡사 사경봉안 대법회
■ 각 지역별 연락처 (차량은 지역별로 운행)

천안 구룡사 041-552-9666~8	수원 박찬희 010-6304-3459
제주 불사리탑 064-783-8801	분당 명심행 011-9248-3844
부산 법화정사 051-623-3595	울산 윤태숙 016-548-0753
대구 박기섭 053-751-2366	강릉 민영희 019-287-8855
대전 윤서빈 010-4000-8660	구미 이재금 011-825-8558
강원도연화정사 033-671-7590	원주 강옥녀 033-743-8845
청주 김명복 043-231-5136	안동 노노미 016-309-3539
광주 은미사 062-223-4752	상주 이보리삼 054-535-2952
광주 영광사 062-266-6981	전주 송복실 010-6808-2807
진주 장동주 010-6799-8584	마산 이명희 016-9234-8850
진주 박인순 011-9312-5712	인천 정영실 010-5295-1068
진해 김기연 010-9570-3475	